



2023년 11월 12일(제1166호)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슬기로운 준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다고 하시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에 등장한 열 처녀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리석은 부류와 슬기로운 부류이지요.

복음을 보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다만,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이들은 신랑이 왔을 때 여분의 기름을 챙겨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들은 마중을 나가지 못하고 결국 문밖에서 문을 열어 주십시오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지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도 자지 않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왔으면 함께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준비를 했어야 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때가 오기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날과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과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 간에 벌어질 일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초대받은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 보내도록 합시다.



오승수(미카엘) 신부
비행(육군 제25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6,12-16

회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시

1테살 4,13-18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마태 25,1-13

영성제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이홉 번째 시집

1853년 10월 23일

마카오의 스승 신부님께

……은 나라가 온갖 재앙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천주교인, 외교인, 양반, 상민, 강자, 약자 할 것 없이 누구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고, 강자와 약자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정의 신하들은 늘 평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계속 노름과 폭음과 추잡한 연회로 자신과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왕은 이름뿐이고 아무 실권도 없습니다. 관리들은 대신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바쳐야 출세합니다. 그래서 바친 돈을 보충하고, 자기 재산을 불리고, 은인들에게 사례하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수탈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열 번째 시집

예수 마리아 요셉,

동골에서, 1854년 11월 4일

지극히 공경하올 리브와(Libois) 신부님께

우리의 착한 선교사이신 장수(Jansou) 양(楊) 신부님의 너무나 슬픈 선종 소식과 그 밖의 소식 등에 대해서 신부님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보내드린 제 서한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수 신부님이 도착하심으로써 1853년 8월 12일자 사부님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공경하올 페레올 주교님의 선종으로 우리가 실의에 빠져 슬퍼하고 있을 때, 새 선교사 한 분이 입국하여 우리한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신부님 편으로 사부님의 서한도 받아 읽었고, 다른 여러 신부님들과 그분들의 활동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항해에서 얻은 병으로 지치고 탈진하신 불쌍한 선교사 신부님의 모습을 대할 때 우리는 무척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들에게 희망을



척박한 고산지라도
천국의 희망을 걸고
뿌리를 내리는
앵초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겪는 힘든 시간을 넘어
찬란히 꽃을 피울 수 있길.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예수님과 슬기로운 처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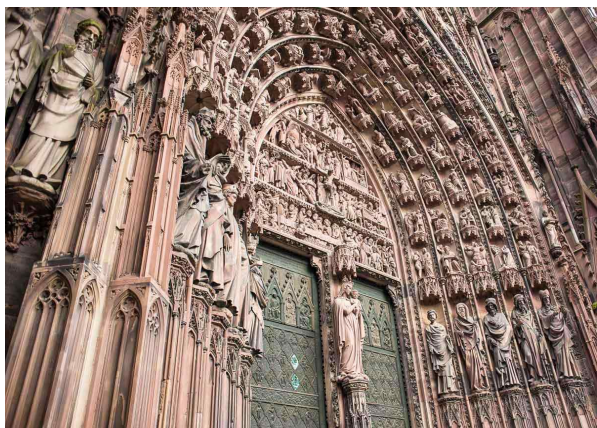


1208년경, 직지 미상
스트라스부르크 노트르담 성당 / 프랑스

오늘 복음 말씀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로, 이 중 5명은 슬기로운 나 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슬기로운 5명은 선 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성체 후 묵상 말씀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지혜의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우리에게 권고한다.

오늘 소개할 이 작품은, 예수님과 슬기로운 처녀를 묘사한 조각작품으로 고딕 성당 외벽에 세워져 있다.

구불구불한 옷감의 흐름과 길쭉하지만 살짝 S자형 자세를 하고 있는 조각상들은 벽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진 않지만, 일종의 독립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한 손에는 글이 적힌 스크롤을, 한 손에는 등잔을 들고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맨 왼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나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3)

김은혜(엘리사벳)

성당 외벽 조각들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백미대 류창훈 신부

◆ 교구장 동정

- 칠성대(공군 작전사)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12일(주일)
- 제25회 한일주교교류모임
때·곳: 11월 14일(화)~16일(목), 일본 도쿄 대교구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 -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